



경제통통

FOCUS

- 124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하는 자영업 지원센터 문 열어

ZOOM IN

- 실력 좋은 봉제공장과 디자이너 힘 합쳐 '의류 브랜드' 만든다
- 서울시, 상담~구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 오픈

HOT ISSUE

- 서울에서 열린 88개국 작품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축제'
- 서울시-핀테크 스타트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시범 도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 01

124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센터 문 열어

124만 명은 바로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83%에 해당하는 65만 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수이다. 그간 소상공인이 서울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경영구조의 열악함, 과도한 임대료 인상,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권익보호의 한계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활동에서 약자인 소상공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책 지원 방향이 이미 영업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입기'와 '퇴로·전환기'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소상공인 전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①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단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②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와 유통·판로확대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 ③ 연간 1조 원 규모의 선별적·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
- ④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중·동·남·서부)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력 좋은 봉제공장과 디자이너 힘 합쳐 ‘의류브랜드’ 만든다

서울의 봉제공장들은 좋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중저가 SPA브랜드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의 국내의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일감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실력 좋은 봉제공장과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가 만나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시범사업이 2016년 8월 첫 발을 내딛는다.

시, 중저가브랜드 시장 잠식으로 위기 맞은 봉제공장 독자적 일감 창출 위해 브랜드 개발 지원

서울의 봉제공장의 86.2%가 브랜드기업이나 동대문 시장 등 유통상이 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옷을 주문받는 단순 제조 납품(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업체로 주문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시장 위축으로 일감 자체가 감소한 가운데 SPA브랜드 진출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맞춰야 하는 부가가치 없는 생산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의류제조분야의 존폐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뛰어난 봉제기술력과 장인정신을 가진 봉제공장을 선발하여 디자이너와의 협업,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자생적인 일감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패션 컨설팅 기관 선정해 디자인-생산-유통-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

‘봉제공장-디자이너 협력지원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봉제공장의 디자인 역량을 키워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기획)-생산-유통·마케팅’의 각 단계를 일원화해 지원한다. 시는 그간 봉제공장과 디자이너 상호 간 협업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획 디자이너 섭외 및 개발,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패션 컨설팅 기관을 별도 선정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하는 디자이너 중 수주(판매) 실적이 우수한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참여시키는 등 상생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매뉴팩처 뉴욕’(Manufacture New York)을 벤치마킹한 ‘매뉴팩처 서울’의 하나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디자이너와 봉제공장 간 협력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며,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봉제산업과 패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ZOOM IN | 02

서울시, 상담~구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오픈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제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시민들에게 공공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센터를 열게 되었다. 특히, 시는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해주는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 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상담·구제·
분쟁조정·처분·
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확대**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의 활동은 크게 ① 상담·구제, ② 처분, ③ 사후관리로 구분되며, 센터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중구 무교로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내에 설치된다. 민생경제과장을 센터장으로 하며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등 상주하는 전담직원과 전문변호사가 법률 자문역할로 참여해 소송장 작성을 돕는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창구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처리범위도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조사관, 금감원
직원 등 10명 상주해
기초·심층 상담, 변호사가
소장 작성도 지원**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개소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열린 88개국 작품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축제’

서울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축제인 ‘제1회 서울 카툰 애니메이션 워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옛새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가 전 세계 88개국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인들과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서울 카툰 애니메이션 워크’는 크게 ①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SICAF), ②서울 상상산업 마켓(Seoul Promotion Plan, SPP), ③서울 상상산업 포럼(Seoul Creative Dream)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88개국에서 작품 출품하는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

올해 20회를 맞이한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은 ‘서울 카툰 애니메이션 워크’의 메인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와이파이 SICAF’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와이파이처럼 친숙하게 SICAF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살려 부산, 광주, 남해, 태백 등 국내를 비롯해 프랑스, 몽골, 일본 등 해외에서도 우수 작품을 상영하는 미니 애니메이션 영화제 ‘SICAF in Local’을 개최했다.

서울 상상산업 마켓: 국내외 273개 콘텐츠 기업 참여, 국내기업 해외 진출 기회

국내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의 기회를 만드는 B2B(Business to Business) 마켓인 ‘서울 상상산업 마켓’에는 The Walt Disney Company, CCTV Dream Channel 등 해외 바이어 84개사, 국내 바이어 64개사 등 총 273개의 콘텐츠기업이 참여했다. ▲바이어와 셀러의 매칭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비즈매칭 ▲경쟁을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젝트 컴피티션 ▲주요 기대작 상영 제작발표회도 진행되었다. ※상상산업 : 만화·애니메이션 등 캐릭터와 배경, 스토리 등이 상상에 의해 구성되는 콘텐츠 산업

서울 상상산업 포럼: 100여 명 전문가 콘텐츠산업 현재·미래 논의, 취업 연결 ‘직업상담회’

서울 상상산업 포럼에서는 상상산업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만나보고 싶은 1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와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상담회 등이 열렸다. 서울시는 “한국의 만화·애니메이션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는 행사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HOT ISSUE | 02

서울시-핀테크 스타트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시범 도입

서울시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손잡고 현금이나 카드결제 없이 전통시장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에스코인(S-coin)(가칭)’을 시범 도입한다. 시는 우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일부를 ‘에스코인’으로 공무원들에게 시범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소상공인 상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금·카드결제 없이
QR코드 활용 결제...
시 공무원 복지
‘온누리상품권’에
시범적용

서울시는 일본, 미국 뉴욕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이 금융거래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시 복지사업 일부를 디지털 화폐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사업인 핀테크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에스코인 도입으로 시장 상인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전통시장 간편 결제,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
중국인 관광객
간편 결제도 추진

‘영세상인 대상 카드2폰·폰2폰 결제 시스템’은 전통시장 등에서 장사하는 무점포 영세 상인들이 별도의 카드결제 단말기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최근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 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7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 은행의 높은 송금 수수료가 부담돼 불법 환치기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중국인 관광객 간편 결제 시스템’은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도 별도의 환전이나 충전 없이 평소에 중국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결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공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성장 동력사업인 핀테크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4개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 핀테크 스타트업이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